정읍시민장학재단, 장학금 기탁 열기로 '훈훈'

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이사장 이학수)에 지역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기탁 열기가 줄을 잇고 있다.

지난 26일 ㈜태영기술공사 장성태 대표는 정읍시청을 찾아 지역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장 대표는 "학생들이 지역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배움에 전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기금을 기부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수성동 소재한 토목 설계업체인 태영기술공사는 2016년을 시작으로 장학재단에 총 4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같은 날,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 영농조합법인(대표 유영남)에서도 2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3번째다.

정문희망마을 웰빙체험타운은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주체가 돼 정읍산 콩으로 특색있는 마을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천원 아침밥 확대, 70주년 백서 발간"

전북대 총동창회 동문대상 시상식 · 신년교례회 성료
새만금 무료소송 이끈 차종선 변호사 동문대상 수상

전북대학교 총동창회(회장 최병선)는 지난 25일 오후 진수당 가인홀에서 동문대상 시상식 및 신년교례회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신년교례회에는 최병선 총동창회장과 양오봉 총장, 김수곤·두재균 전임 총장,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유희태 완주군수 등 200여 명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또한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김윤덕·김성주·진성준·안호영·신영대 국회의원 등은 동영상을 통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한편 올해 동문대상은 차종선 변호사가 수상했다. 차 변호사는 새만금 무료 소송을 통해 중단됐던 새만금사업 개발공사를 재개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아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최병선 회장은 "올해는 동문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2만4천여 명의 학생들에게 1,000원의 아침식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제22대 국회의원당선동문 축하연, 동문친선골프대회 개최, 동창회 70주년 백서 발간, 재학생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날 양오봉 총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한 해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과 대학종합평가 거점국립대 1위 등의 눈부신 성과는 구성원들의 노력과 동문들의 뜨거운 성원이 더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올 한해도 전북대라는 이름만 들어도 자긍심이 샘솟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익산시의회 정영미 · 조은희 · 최재현 의원, 의정봉사상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 정영미(삼기, 영등2, 삼성), 조은희 의원(함열, 황등, 함라, 웅포, 성당, 용안, 망성, 용동), 최재현(모현, 송학)이 지난 25일 열린 제280차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기동) 월례회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시민보다 한발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민원해결에 앞장서 온 정영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송4지구 개발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위한 예방대책,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청년정책 조직체계 일원화를 제안한 바 있으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홀로그램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지역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또한,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 시민들의 작은 고충도 세세히 살피고 귀담아 들으며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조은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익산시청 북부청사 주차문제 대책, 국립치유의숲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 바 있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조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현장도 살뜰히 챙겼다.

마지막으로 꼼꼼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온 최재현 의원은 지역대학과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위기극복 방안, 학교복합시설 건립, 도심 내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권역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공직사회의 일·가정 양립방안 마련 등 다방면에 걸쳐 5분 자유발언과 조례 제·개정 등 입법활동에 힘써왔다.

/익산=이재춘 기자

착한동네, 만경제재소 화재에 100만원 기부

김제시 만경읍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5일 세종시 소재한 ㈜착한동네(대표 박수영)가 작년 12월에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만경제재소에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착한 동네는 농어촌 지역개발 전문 컨설팅회사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만경제재소 화재 사고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빠르게 복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정했다.

㈜착한동네 박수영 대표는 "이번 기부가 화재로 피해를 입은 관계자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세아베스틸, 전북자치도에 화재피해 복구지원 성금 기탁

전북특별자치도는 26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세아베스틸 신상호 대표이사,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취약계층 화재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성금은 세아베스틸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급여 중 일부를 모아 1,000만원을 기탁했으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취약계층 화재피해주택 복구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취약계층 화재 피해주택 복구지원사업은 지난 2017년 화재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집을 새로 지어주는 '119행복하우스' 지원 사업으로 처음 시작했다.

또 2022년 집 일부를 수리해 주는 '119안심하우스' 사업까지 확장해 현재까지 도내 12가구를 지원했다.

복구지원사업의 모든 재원은 소방공무원·의용소방대원 기부금과 기업·단체 후원금으로 충당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화재로 피해를 입은 도민을 지원하는 일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세아베스틸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도 차원에서 앞으로도 주민 체감형 정책을 만들어 함께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실현시켜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상호 대표이사도 "회사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이 뜻깊게 사용될 수 있어 매우 보람을 느낀다"며 "나눔의 문화가 도민들에게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피력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은행, 설 명절 생필품 꾸러미 150상자 전달

지난 26일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에서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식료품 꾸러미 150상자(45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번 이웃사랑 선물꾸러미 나눔 사업은 전북은행에서 설 명절을 맞아 사회적 취약계층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하는 활동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전상익 부행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 나아가는 전북은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소외되기 쉬운 이웃에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전북은행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전북은행은 향토 은행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으며 명절 선물꾸러미 지원, 희망의 공부방 지원사업 등 관내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진안 안천면 부뚜막 대표, 진안사랑 장학금 기탁

진안군 안천면에 위치한 음식점인 부뚜막 이인재 대표는 26일 안천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 연초방문서 진안사랑장학재단(이사장 전춘성)에 장학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인재 대표는 "연초를 맞아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장학금을 기탁하게 되었다.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마음껏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작지만 보탬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전춘성 이사장은 "지역의 미래인재 양성에 큰 힘을 보태주신 부뚜막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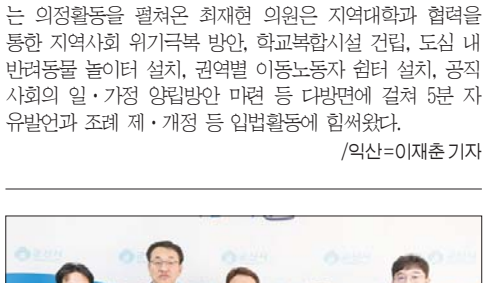
남원시는 두툼한 돌봄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 남원 실현을 위해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을 지난 25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작년에 이어 23개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을 대상으로 매월 운영되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례를 발표하고 경험이 많은 통합사례관리사와 동료들이 슈퍼비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슈퍼비전이란 일정한 지식과 기술의 준비를 갖춘 사람이 비교적 덜 준비된 사람을 훈련시킬 책임을 감당하는 교육과정으로, 지역사회복지관련 기관을 순회하며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다지는 자리가 되고 있으며,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주민복지과 허인선 과장은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읍면동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해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 체계 마련으로 시민들이 복지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곳곳 희망2024 나눔캠페인 동참 잇따라

남원시와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하는 희망2024 나눔캠페인은 갑진년 새해에도 따뜻한 남원을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지난 26일 에스피에스 코리아(대표이사 조창식)에서 5백만원, 남원산림골재협회(회장 최기호)에서 성금 5백만원을 남원시에 기탁했다.

에스피에스 코리아는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외환거래 투자상품을 운영하는 회사로 본사는 말레이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원산림골재협회(금강건재(유), ㈜남원개발, 강우건설 유한회사, (유)상산개발, ㈜송광산업)는 골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협회이다.

최기호 협회장은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지역사회와 동반 상생하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으며, 최경식 시장은 "경기 불황으로 어느 시기보다 사랑의 온도탑이 낮은 가운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사면 행복보장협, 찾아가는 마실영화관 사업 방영

전주KBS가 지난 25일 지사면 행복보장협의체가 운영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 이벤트인 '찾아가는 마실영화관' 사업을 다룬 녹화를 진행했다.

지사면 행복보장협의체(위원장 최준호)는 예성공부방(원장 황지용)과의 협조를 통해 2023년 말부터 2024년까지 농한기를 활용하여 지사면과 인근 오수면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찾아가 영화를 상영하는 찾아가는 마실영화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준호 위원장은 "거동이 불편해 문화생활에 제약이 있는 어르신들에 마실영화관 사업이 우울감과 고독감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재경 정읍시민회, 정기총회 · 신년 하례식 개최

재경 정읍시민회(회장 김호석)는 최근 서울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재경 정읍시민회 2024년 정기총회 및 신년 하례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수 시장과 윤준병 국회의원, 고경윤 시의회의장 등을 비롯해 500여명의 출향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재경 정읍시민회는 고향에 대한 사랑과 지역 인재 양성에 보탬이 되고 싶은 뜻을 모아 5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가 많은 발전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원동력에는 향우회원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정읍이라는 이름이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공인중개사협 군산시지회, 성금 200만원 전달

지난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군산시지회(지회장 채용석)에서 동절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성금 2백만원을 군산시에 전달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군산시지회는 매년 회원들의 정성을 십시일반 모아 이웃돕기 성금으로 군산시에 기탁해 오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나눔문화 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기탁식에 참석한 채용석 지회장은 "전달된 성금이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나눔 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지역사회와 동행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해마다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한 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군산시지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